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13	09. 20	09. 27
대표 기도	유미경 집사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성경 봉독	유미경 집사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삼시다(고전4~16장, 고후1~9장)
2. 고국 방문 - 김수정 성도(2일, 수)
3.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4. 주일예배-정해진 시각에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 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면예배 참석에 힘쓰시기 를 권면합니다
5. 나눔의 시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이효실 성도(7일) 김복자 권사(8일)
생일	김효종 집사(11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민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 (새번역) .....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 286장 ..... 다같이
- 기 도 Gebet ..... 정용현 안수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 눅 4 : 1 - 13 (신p93) ..... 정용현 안수집사  
(Lukas 4:1-13)
- 설 교 Predigt ..... 진검 승부! .....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 288장 ..... 다같이
- 현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 (새 가족 환영) .....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유미경 집사

## 인생의 올바른 방향

사하라 사막 서쪽에는 사하라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여행객들이 그 말을 방문하기 위해 사막을 찾습니다. 하지만 레빈이라는 사람이 방문하기 전까지 그 말은 전혀 개방되지 않은 낙후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척박한 사막을 떠나고 싶어서 탈출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지만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레빈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손짓, 발짓으로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든 결국에는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아요. 레빈은 그 말이 사실인지 실험해보기 위해 직접 북쪽을 향해 걸어갔고 3일 만에 사막을 빠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청년 한 사람을 데리고 청년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10일 동안 밤낮없이 걸어갔습니다. 11일째가 되는 날, 사람들의 말대로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레빈은 마침내 그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알았는데, 그들은 아무도 북극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레빈은 지난 번에 함께 여행을 갔던 청년에게 낮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아꼈다가 밤에 북극성을 따라 걸으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청년은 레빈의 말대로 했고 드디어 사흘 만에 사막 경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훗날 청년은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개척지 중심에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에는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회복 / 김원태 목사  
(수지 기쁨의 교회 담임)

\* 회개로 맛을 내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아니다.

- Charles Spurgeon -